

2011년 2월 5일 독일 뮌헨에서 열렸던 안보 회담에서 영국의 신임 수상인 캐머런(David Cameron)은 영국의 다문화주의가 이슬람 공동체를 사회와 격리시키고 주류 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방해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동체에 속한 이슬람 젊은이들을 급진화시키고 나아가 테러리즘의 온상이 되는데 공헌해 왔다고 주장했다.

1960년대부터 영국 정부가 지지해왔던 영국 내의 모든 그룹이 그들의 전통적인 가치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권리는 영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사회통합과 법 앞의 평등에 중심을 둔 공통의 정체성을 증진시키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John F. Burns, "Cameron Criticizes 'Multiculturalism' in Britain," The New York Times (February 5, 2011).

이런 경향에 대처하기 위해 그는 유럽의 각국 정부에 이슬람 공동체와 문화에 대한 수동적인 관용 대신에 자유주의에 기반해 좀 더 적극적이고 강한 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캐머런은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와 공동체 센터에서 연설하기 위해 영국을 방문하는 '편파적인 이슬람 설교자'의 입국을 차단하고 여성과 남성의 평등적 가치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에 적대적인 관점을 전파하는 무슬림 그룹들을 통제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한, 이런 설교자와 그룹이 대학이나 감옥 등과 같은 공적으로 지원되는 제도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차단하고 그런 그룹들에 대한 정부의 보조를 삭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마도 그 자리에 함께 참여했던 독일 수상 메르켈(Angela Merkel) 역시 구체적인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캐머런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과 그 취지에는 공감했을 것이다. 실제로 메르켈은 작년 10월 자신이 속한 기민당의 내부 토론에서 독일의 다문화주의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프랑스 대통령인 사르코지(Nicolas Sarkozy) 역시 이주자의 정체성 보다는 프랑스의 국가 정체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지선·김형미, "조화롭게 살자더니... '우리의 가치가 싫으면 떠나라'", 경향신문 (2011년 2월 15일).

서유럽에서 다문화주의는 뚜렷한 후퇴를 경험하고 있다. 20세기 후반의 국제 이주와 더불어 다문화주의를 포괄적으로 받아들였던 스웨덴과 네덜란드의 다문화주의의 후퇴와 함께 9·11을 기점으로 한 미국과 서유럽에 대한 테러리스트 공격은 이런 후퇴를 가속화하는 데 일조해왔다. 반면에, 다문화주의가 이론적, 실천적으로 발전한 캐나다의 경우 다문화주

다문화주의와 민주주의

글 · 이충훈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leec608@gmail.com



의는 퀘벡의 프랑스계 이주자와 토착민 인인디언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주 그룹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함양하는데 공식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일본 역시 최근에 '다문화적 공존'이라는 개념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고 한국 역시 '다문화 가정'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국제 이주자, 특히 한국인과의 결혼을 통해 이주한 여성과 그 가족에 대한 이주 정책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왔다.

국제이주와 다문화주의

국제이주의 관점에서 다문화주의는 2차세계대전 이후 성장하기 시작한 새로운 국제 이주 현상에 대한 사회통합 방식의 대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제 이주 규모의 증대와 이주자들의 문화적 다양성의 증대는 주류 문화와 이주 그룹의 문화 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제기해왔다. 다문화주의는 기존의 사회통합 방식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동화' (assimilation)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주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포기하고 주류 문화를 받아들일 것을 전제하는 동화는 자문화와 타문화간의 암묵적인 위

계 관계를 전제하고 있다. 자문화와 타문화간의 관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폭력적'인 방식으로 자문화를 옹호하고 타문화를 배제해왔기 때문이다.

동화 방식에 의한 이주자들의 사회 통합은 한 국가내부에서 단일한 주류 사회의 문화에 기초한 민족적 혹은 인종적 정체성을 구성하고자 하는 노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런 노력 속에서 주류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는 이질적인 문화들을 배제하고 주변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와 동시에 이질적인 문화에 속해있는 개인들은 사회로부터의 좌절과 이탈을 경험하며 개인의 자유 및 자율성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주류사회의 지배적인 문화가 이주자들의 문화를 배제하거나 주변화시키는 한 정치적 갈등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면에 다문화주의는 한 문화가 그 문화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는 문화의 순기능에 초점을 맞춘다. 지배적인 문화로의 흡수 통합을 의미하는 동화와는 달리 다문화주의는 이주자들이 그들 자신의 문화적 유산을 간직한 채 주류 사회로 진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주자들은 주류 사회의 모든 문화적 실천과 관습을 받아들이지 않고도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동시에 이주한 국가의 정치 과정과 제도, 사상, 그리고 언어에 대한 새로운 서약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문화 논쟁

서구에서 다문화주의는 크게 세 가지의 논쟁을 낳았다. 우선 위에서 언급한 동화와 다문화주의간의 논쟁이 존재한다. 동화론자들은 언어와 종교, 그리고 자유주의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이주자들이 언어와 자유주의적 가치를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종교의 경우는 대규모



이주자 그룹(히스패닉(미국)과 서남아시아, 북아프리카, 터키 출신 이주자들(유럽))이 믿는 카톨릭(미국)과 이슬람(유럽)이 자국의 전통적인 종교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왔다. 특히, 미국의 경우, 동화와 다문화주의간의 논쟁은 언어(영어)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이나 학교에서 영어만을 사용하지는 단일 언어 정책과 이주 그룹의 언어적 권리에 기반한 다문화적인 이중 언어 정책간의 논쟁이 중심을 차지해왔다.

유럽의 경우, 논쟁의 중심은 언어보다는 종교에 있다. 80년대부터 시작된 이슬람 이주자들의 문화적 인정 투쟁과 특히 9·11을 포함한 2000년대의 일련의 테러는 안보 문제와 결부되면서 이슬람 이주 그룹과 그들이 믿는 종교를 다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보다는 위험과 통제 대상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심화되어 왔다. 이는 유럽 통합의 과정에서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의 지역적 통합 과정에서 고유한 언어적 권리가 인정되고 있지만 종교인 이슬람의 경우는 유럽의 어느 국가에서도 공식적인 종교로서 인정된 적이 없다는 역사적 맥락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다문화주의에 관한 두 번째 논쟁은 법적, 제도적 논쟁과 관련되어 있다. 이는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구체적인 법적, 제도적 조정뿐만 아니라, 문화와 문화간의 소통과 협상, 혹은 상호 이해에 도달하거나 그것에 실패하는 광범위한 범위의 문화적 관계에 관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 과정속에서 한 문화속에서 간과되어왔던 내적 차이들이 부각되기도 하고 문화 이외의 다양한 문제들-여성, 환경, 노동, 복지 등이 중첩적으로 구성되기도 한다.

이런 논쟁에는 프랑스의 공립학교에서 이슬람 소녀들의 스카프나 유대인 소년들의 키파(일종의 모자) 착용이 허용되어야 하는가, 일부 이주 그룹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아내와 소녀에 대한 명예살인이나 자녀와의 동반 자살에 대해 법적으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가, 특정 이주자 그룹의 일부다처제나 조혼, 여성에 대한 성기 할례 등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주 그룹의 기념일이나 공휴일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가, 사무실이나 공장에서 이슬람 노동자들의 기도 시간은 준수되어야 하는가와 같은 긴 항목의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 논쟁은 동화와 다문화주의 모두에서 나타나는 문화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차이의 정치론(the politics of difference)은 문화에 직접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다문화주의가 구조적이고 지위적인 차이-예를 들어, 계급, 젠더(gender), 인종, 장애우-에 기반한 집단 간의 차이와 억압의 문제를 도외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룹 차원에서 이주자들은 이런 구조적, 지위적 차이 중 일방향의 지위(예를 들어, 이주 노동자)를 차지할 수 있다. 국가에 의해 규정된 이주자들의 신분상의 차이(예를 들어, 영주권자와 비영주권자, 불법체류자 등)는 이주자들이 주류 사회로 통합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제약할 수 있다.

또한 종종 문화로 대표되는 이주자들이나 소수 그룹의 정체성은 문화적 억압에 대한 저항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그 그룹이 처한 구조적 지

위와 그런 구조적 지위에서 산출되는 억압을 교정하고자 하는 그룹 차원에서의 동원과 조직화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문화주의는 구조적 지위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거나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감추는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다문화주의와 민주주의

다문화주의에 관한 논쟁은 세 번째 것을 제외하면 문화의 '내용'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서구에서 민주주의에 관한 최근 논의의 핵심 중의 하나는 그것의 '형태'와 '절차'에 대한 강조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형태와 절차에 대한 강조는 한 사회의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이 정치적으로 평등한 개인들 간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토의 절차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는 민주적 이상에 기초한다.

이는 의사결정이 그 의사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참여와 토의를 전제한다. 여기서 최종적인 의사결정, 민주적인 형식과 절차가 산출하는 '내용'은 사전에 결정된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보장된 민주적 제도와 과정 내에서의 토의를 통해 결정된다.

국제 이주의 관점에서 이주자들의 민주적 통합은 그들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그 속에서 주류 사회의 구성원들과의 토의를 통해 공통의 삶의 기반을 조정하고, 협상하며, 이주 그룹에 대한 사회정치적 부정의에 저항하기 위하여 주류 사회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민주적 형식과 절차에 대한 참여를 가능한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종종 국적자에게만 해당하는 시민권의 제반 권리들-특히 사회적 권리와 교육권, 그리고 정치적 권리를-비시민권자인 이주자들에게 부여하는 것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이런 방식의 이주자들의 주류사회로의 민주적 통합과 가장 반대되는 반민주적 통합은 앞서 언급한 캐머런, 메르켈, 사르코지의 사례에서 분명히 살펴볼 수 있다. 이들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과 정책적 철회에 대한 공언은 민주적 조건을 무시하고 이주자들의 의사에 상관없이 자유주의적, 혹은 공화주의적 가치를 통합의 가치로서 위로부터 부과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반민주적 통합 속에서 동화와 다문화주의의 문화에 관한 내용적 갈등은 전면화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다문화주의는 문화의 내용보다는 이주자들이 주류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통합의 형식과 절차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반면에, 민주주의자라면 이주자들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형식과 절차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문화적 조건(예를 들어, 서로 다른 언어의 소통의 문제)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

현대의 다문화라는 현실속에서 서구에서의 새로운 '민주화'의 과정은 국제 이주자들의 정치적, 사회적 통합을 위한 '문화 없는 다문화주의'이며, 이주자들의 문화적 차이에 민감하고, 민주적 절차와 형식에의 참여를 통해 문화 간의 차이가 협상되고 타협되며 상호 인정될 수 있다는 신념에 기초한 민주적 통합이다. ~~다문화주의~~